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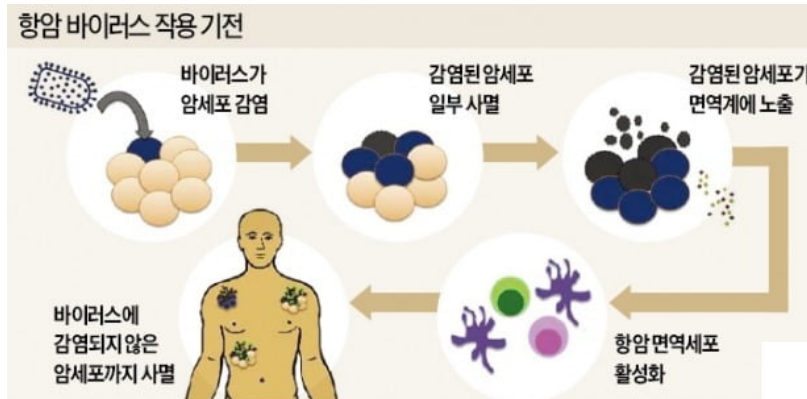
신라젠 펙사벡 글로벌 임상 실패에...확산되는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효능 논란

입력 2019.08.05 17:53 | 수정 2019.08.06 02:12 | 지면 A16

클린뷰
바이오

단독요법으로는 약효 미미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 부족
vs
美·日서 긍정적 연구 결과 '속속'
암 치료 새로운 대안 될 수 있어

신라젠이 간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을 포기하면서 바이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선 펙사벡이 아무런 효능 없는 '물약'이 아니냐는 지적부터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의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암젠의 '임리직'처럼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있는 만큼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의 한계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암세포 공격하고 면역체계 활성화

임리직은 2015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임리직을 시작으로 바이러스를 암 치료에 활용하는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항암바이러스는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특정 유전자를 삽입한 바이러스다. 유전자 조작이 일어난 항암바이러스는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감염시켜 몸속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을 유도한다. 암세포 혈관을 괴사시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역할도 한다. 바이러스는 다른 미생물보다 크기가 작아 DNA 조작이 쉽고, 세포 조직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단독 요법에서는 약효가 유효하다는 임상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기존 항암제나 면역관문억제제 등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리직은 MSD의 키트루다, BMS의 오피보 여보이 등 면역관문억제제와 함께 투여하면 2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파인인사이트 인도네시아 의료데이터 사업 참여
- 스마젠,美서 에이즈백신 신약 임상 본격화
-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 "치매 치료 신약 美 임상 2상 중...혁신 일으킬 것"

실시간 인기기사

- 1 침체 공포에 美 부자들 지갑 닫는다
- 2 [전예진의 토포약국] 25억원짜리 의
- 3 최저임금 오르지...거주 외국인 확
- 4 "네가 나 괴롭혔잖아"...53년 만에 만
- 5 '철 지난' 갤럭시S10 5G 뒷심 이유

이 시각 관심정보 AD

"빛"때문에 너무 힘들어, 회색파산 어 로또 1등,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당첨! 로또용지 뒷면, "1등당첨" 비밀 숨겨져 "살빠지는 DNA발견", 1주에 "-18kg" 감 운동없이 똥지방 -10kg빼는 이것!??다 "로또1등" 용지뒷면에 비밀밝혀, 충격 로또용지 뒷면, "1등당첨" 비밀 숨겨져 "똥, 돼지똥"보다 더 로또 당첨 잘되는

오늘의 핫 클릭 AD

가장 많이 본 기사

25억 원짜리 주사약 11면...

미국 부자들, 호화주택 던지기 시작했다 "네가 괴롭혔잖아"...53년 만에 만난 동

한국 최저임금 올리자 너도나도...

의사 만나려면 29일 기다려야 하는 마 "물따귀에도 끄떡없는 철벽녀"

"이병철 등 5개 그룹 창업주, 다 여기서

오늘의 관심정보 AD

요법으로 말기 피부암 치료제로, 키트루다와의 병용 요법으로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이다.

미국 리플리문은 헤르페스바이러스에 기반을 둔 항암바이러스를 옹디보와 병용해 피부암, 대장암, 방광암 임상 1상을 하고 있다. 일본 다카라바이오는 항암바이러스와 여보이 병용으로 피부암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업체

업체	제품 또는 개발명	활용바이러스	적응증	단계	병용임상약
암젠(미국)	임리직	헤르페스	흑색종 등	미FDA 허가	키트루다, 옹디보, 여보이
MSD(미국)	카바탁	족사기	피부암 등	임상2상 완료	키트루다, 여보이 등
온클리틱스바이오텍(캐나다)	델라레오렘	리오	유방암 등	임상2상	티센트릭, 바벤시오, 키트루다 등
다카라바이오(일본)	카네르파츄레브	헤르페스	피부암 등	임상 2상	여보이, 옹디보 등
신라젠(한국)	펙사백	백시니아	신장암 등	임상 1상	리브타요, 임핀지 등
진메디신(한국)	GM101	아데노	췌장암, 폐암 등	임상 1상 완료	-
바이로큐어(한국)	RC-402	리오, 폭스	위암 등	전임상	-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175종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항암바이러스 치료제는 175종에 이를 정도로 개발 경쟁이 뜨겁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라젠은 옹디보와 여보이, 사노피의 리브타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등 4종의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키트루다와 펙사백의 병용 임상도 내년 1분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바이로큐어와 진메디신은 단독 요법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로큐어는 올해 호주에서 위암, 폐암, 대장암 등을 적응증으로 한 'RC-402'의 임상 1상을 시작한다. 진메디신은 전이암 치료제(GM101)의 임상 1상을 마쳤고 폐암 치료제(GM103)는 내년 중, 췌장암 치료제(GM102)는 2021년 임상 1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라젠의 글로벌 임상 3상 중단으로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의 효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바이오텍은 "이번 실패는 신라젠과 파트너사인 트랜스젠을 넘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머크나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항암바이러스의 가능성을 보고 지난 2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했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의 잠재력이 아직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다. 윤채욱 진메디신 대표는 "미국 일본 등에서 개발 중인 항암바이러스 치료제들이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항암바이러스 치료제가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상 3상 조기 종료는 펙사백의 문제가 아니라 표적항암제와의 병용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에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m@hankyung.com

박상익 기자

기자의 인기글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호소 "실패 비난만 하면 바이오 다 죽는다"
- 서정진 "年10조 매출 일으킬 램시마SC, 연내 유럽 승인 자신"
- 新기술 K바이오 100곳 '한자리에'...투자자 1000명과 직접 만난다

핫이슈

2/2



'마약 투약' 정석원, 2심에서 도...



발 헛디뎠던 이채영, 포착 된 모습이... '아찔'

조이인포

- 신차구입 말고, 장기렌트카가 각광받는 이유
- '임플란트' 희망자 모집 (40세 이상)
- 허리통증, 어깨통증 씻은 듯 사라져. 비결은?
- 입냄새, 잇몸 염증 감쪽같이 사라져.. '무료체험'
- 30대 고혈압환자도, 60대 당뇨약을 먹어도 실...
- 고맙다 딸! 한화손해보험 유병자암보험

이 기사에 대해 한마디 남기기

이슈+

격화되는 '조국 대전' 靑 "조국 정치공세 낙마 안 돼...청문회 꼭 열어야"



대법 '국정농단' 선고 "대법 국정농단 판결, 정경유 착 확인...이재용 집유 어려울



내년 513조 추슈퍼예산 내년 사상최대 '적자 예산' 짠 정부...513.5兆 국채 60兆 찍어



한은, 금리인상 동결 JP모건 "한은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 2번 내릴 듯"



POLL 진행중 : 2019.08.23~2019.09.09

지소미아 전격 파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전격 파기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 맞불을 놓았습니...

투표하기

The pen

조동사 would 개념 바로잡기

조동사 would를 개념 바로잡기 영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그 빈도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면, 상위에 속하

착 붙는 중국어 회화: 준비 없이 시험을 본다

裸考 luo ǎo 준비 없이 시험을 본다 A: 明天考试, 我得去自习室通宵了。 A: Míngtiān kǎoshì, wǒ déi qù zìxíshì

경력 면접 시, 고려할 10가지 포인트

경력 면접 시, 고려할 10가지 포인트 홍석환 대표(홍석환: HR전략 컨설팅, no1gsc@naver.com) 서류는 합격하는데!

연예

양현석, 23시간 경찰 조사
혐의 대체로 부인

리뷰+ | '힘을 내요, 미스터리'
대놓고 웃겼다가 울렸다가

한선화, 동생 한승우 응원
"엑스원 데뷔 축하"

·홈페이지 ·오피니언 ·경제 ·정치 ·사회 ·증권 ·부동산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골프스포츠 ·연예

한국경제신문 회사소개 구독신청 고충처리 광고안내 대표번호 : 02-3604-114

한경닷컴 회사소개 제휴 / 콘텐츠구입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이상훈) 사이트맵 문의 대표번호 : 02-3277-9900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사업자번호 : 104-81-4798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35 등록(발행)일자 : 2009.11.23 발행·편집인 : 하영춘 © 한경닷컴

한국경제Family 한국경제TV 한국경제매거진 Book 한경아카데미 텐아시아

광고안
Adverti